

농공단지 면적·입지 규제 대폭 풀린다

1984년 처음으로 조성됐던 농공단지의 면적과 입지 관련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또 명칭도 '지역산업단지' 등으로 바꾸는 방안이 추진되는 등 농공단지를 지방의 산업기지로 위상을 높이기 위한 대책이 추진된다.
산업자원부는 17일 산업집적정책 심의회를 열어 이런 내용의 '농공단지 활성화 방안'을 확정했다.
농공단지는 농어촌의 소득증대와 도시에 입지를 마련하지 못한 소규모 기업들을 위해 농어촌에 위치하는 소규모 공업단지로 농림부장관이 지정한 농어촌 지역중 시·읍과 인접한 지역에 한정된다.
산자부는 농공단지의 규모 확충과 입지 공

지정 할당면적 133만㎡ → 166만㎡ ... 건폐율 상향

명칭 '지역산업단지'로... 지자체서 추가 조성도 가능

급을 위해 현재 133만㎡인 시·군별 농공단지 지정 할당면적을 166만㎡로 늘려 충남 서산시나 경남 김해시처럼 이미 할당량을 소진한 지방자치단체도 추가로 농공단지를 조성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공업지역에 위치한 농공단지내 시설의 건폐율이 공업지역 기준(70%)이 아닌 농공단지 기준(60%)이 적용되는 문제점도 고쳐 건폐율

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농공단지 통합정보망을 구축해 단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돕고 정부가 추진중인 전국 산업단지의 혁신 클러스터와 연계성을 높여 경영과 기술·관료·인력·정보화에 대한 지원도 늘릴 계획이다.
정부는 특히 농공단지라는 명칭이 오지나 낙후지역의 이미지를 줄 수 있어 내년 상반기

에 명칭 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전국 101개 농공단지 입주기업 203개를 대상으로 실시한 사전조사에 따르면 조사대상의 80.3%가 이름 변경을 희망했으며 새 이름으로는 희망자의 72.8%가 '지역산업단지'를 꼽았다.
이밖에 농공단지가 향토산업 육성의 토대인 지역특화단지로 손쉽게 지정될 수 있도록 지정요건 가운데 업체수가 4개 이상이어야 한다는 요건을 삭제하고 낙후 농어촌 지역의 지역특화단지 조성비 지원을 늘리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전국에는 345개 농공단지에 5천여개사가 입주해 현지 주민 등 11만7천 명을 고용하고 있다. /연합뉴스



■개인영업임여대비 종합소득금액 비율 (단위:원,%)

연도	개인영업임여(A)	종합소득금액(B)	비율(B/A)
1998	78.8조	21.4조	27.2
2000	82.9조	32.2조	38.8
2002	87.4조	38.7조	44.3
2004	79조	44.2조	55.9
2005	79.7조	48.7조	61.1

자영업 세원 투명성 높아졌다지만...

100원 벌면 61원만 신고

소득 탈루액 40% 달해

자영업자의 세원투명성이 높아지고 있지만 아직도 소득 탈루율은 4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재정경제부와 한국은행 등에 따르면 2005년 기준 국민계정상 개인영업 임여는 79조7천억원에 달했지만 신고된 종합소득금액은 48조7천억원으로 나타나 자영업자의 소득포착률(종합소득금액/개인영업임여)은 61.1%로 추졌됐다.
개인영업임여란 분배국민소득(일정기간의 국민의 생산활동에 있어서 이들의 생산활동에 참가한 생산 요소에 대해 지급되는 소득의 총액) 측면에서 자영업자의 소득을 나타낸 것이고, 종합소득금액은 과세당국에 신고되는 자

업자들의 소득을 말한다.
국민계정상의 개인영업임여와 종합소득금액을 비교한 소득포착률이 61.1%라는 것은 자영업자들이 실제 벌어들이는 소득이 100원이라면 과세당국에 신고하는 금액은 61원에 불과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만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사용 활성화, 장부기장 확대 등으로 자영업자의 소득포착률이 과거에 비해서는 크게 올라간 것으로 나타났다.
1998년의 경우 소득포착률은 27.2%에 불과했지만, 1999년 30.0%, 2000년 38.8%, 2001년 42.2%, 2002년 44.3% 등으로 상승했다.
2003년에는 소득포착률이 51.5%로 올라섰고, 2004년 55.9%, 2005년 61.1%로 높아졌다. /연합뉴스

상장사 '트리플 크라운' 영광

올 매출액·영업·순이익 모두 두자리 성장률 예상

증권정보 업체 157개사 조사

유가상승, 환율하락 등의 어려움 속에서도 올 매출액 상승률과 영업이익, 순이익이 모두 두자릿수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17일 증권정보업체 예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유가증권시장의 12월 결산법인 가운데 4·4분기 시장 추정치(컨센서스)가 있는 157개사의 올 매출액과 영업이익, 순이익은 각각 441조6천919억원, 46조9천483억원, 41조3천175억원으로 예상된다.
이는 지난해 매출액 396조7천509억원, 영업이익 31조9천100억원, 순이익 29조7천818억원에 비해 각각 11.34%, 47.13%, 38.73% 늘어난 규모다.
올해 추정치는 3·4분기까지 확정된 실적에 4·4분기 컨센서스를 더해 산출했다.
작년 대비 영업이익이 가장 많이 늘어

날 것으로 예상되는 회사는 LG필립스 LCD로, 지난해 9천452억원의 영업이익에서 1조4천115억원의 영업이익으로 돌아설 전망이다.
국민은행과 신한지주, 현대중공업, POSCO, LG, 대우조선해양, LG화학, 외환은행, 현대차도 각각 영업이익의 증가 상위 10개사에 포함됐다.
영업이익이 지난해에 비해 2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추정되는 상장사도 30개사에 달했다.
IBS스포츠의 경우 지난해 6억원 가량이었던 영업이익이 올해는 76억원으로 10배 이상 늘 것으로 보이며 삼성전기와 남해화학, 보령제약, STX조선, 화인케미칼이 2006년 대비 5배 이상 늘어난 영업이익을 기록할 전망이다.
영업이익의 흑자전환이 예상되는 기업은 LG필립스LCD를 비롯해 대우조선해양, 케이피케미칼, 카프코, 포항강관, 동부제강, S&T토머스 등 7개사다. /연합뉴스

미국발 악재 ... 코스피 55.23P ↓

사흘째 내리막... 1,840 하회

국내증시가 해외 악재의 영향으로 3% 안팎의 급락세를 연출했다.
17일 코스피지수는 지난 주말(14일)보다 55.23포인트(2.91%) 내린 1839.82로 마감했다. 거래대금은 4조7천110억 원에 그쳤다. 사흘연속 하락하면서 지난 달 28일(1834.69)이후 최저치로 떨어졌다.
코스닥지수도 전 주말 대비 23.04포인트(3.18%) 하락한 702.49를 기록하는 등 이를 연속 급락하며 700선 근처까지 내려앉았다.
이날 국내증시는 미국의 11월 소비자물가지수가 예상치를 상회한데다 열린 그린스펀 전 연방준비제도이사회 의장이 미국 경기의 스테그플레이션 가능성

을 지적했다는 소식에 투자심리가 오그라들었다.
20포인트이상 하락하면서 출발한 코스피지수는 오후들어 낙폭을 더욱 확대했다. 사흘째 하락하면서 가장 낮은 지치선으로 여겨졌던 20일 이동평균선(1882)을 쉽게 내준 것이 하락을 부추겼다고 분석했다. 사흘연속 하락하면서 지난 달 28일(1834.69)이후 최저치로 떨어졌다.
해외증시 급락으로 외국인인 코스피트(3.18%) 하락한 702.49를 기록하는 등 이를 연속 급락하며 700선 근처까지 내려앉았다.
이날 국내증시는 미국의 11월 소비자물가지수가 예상치를 상회한데다 열린 그린스펀 전 연방준비제도이사회 의장이 미국 경기의 스테그플레이션 가능성

동아회원권거래소 광주지사 오픈

21일 서구 치평동서

동아회원권그룹(회장 김영일)은 오는 21일 광주시 서구 치평동 상무 제일주유소빌딩 2층에 동아회원권거래소 광주지사를 오픈한다.
동아회원권거래소는 이번 광주지사 개설을 통해 서울 본사와 서울 강북, 분당, 대전, 대구, 부산 등과 함께 전국적인 영업망을 갖추게 됐다.
광주지사는 골프·콘도·스포츠회 회원 거래 및 신규분양 업무를 담당하며, 전 고객을 대상으로 골프전문 월간지 '골프타임스코리아' 1년 무료 구독권과 캘린더 등을 증정한다. 문의 062-368-1666.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고속도로 통행료 무료 징수시스템

하이패스 20일 완전 개통

한국도로공사는 고속도로 통행료 무인징수시스템인 하이패스가 20일 오후 3시부터 전국 261개 모든 영업소에서 개통된다고 17일 밝혔다.
하이패스는 2000년 6월 서울의곽순환고속도로에서 최초 개통된 후 지난 6월 경부고속도로 서울영업소 등을 시작으로 단계적 구축을 추진해 이번에 전국 영업소에서 개통하게 됐다고 도로공사는 설명했다.
하이패스는 전용차로 운영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지정예상 영업소나 소형 영업소의 경우 일반차로와 전용차로를 겸하는 혼용차로로 잠정 운영할 계획이다.
하이패스 단말기(OBU)는 현재 66만대가 보급됐으며 이날 말까지 총 72만대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기름유출 피해 '태안군 돕기 대 바자'

롯데백화점 광주점은 유조선 기름유출 사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충남 태안군 돕기 '환경사랑 대 바자'를 지난 14일부터 16일까지 사흘간 개최했다. 롯데백화점은 광주점 등 전국 점포에서 동시 개최한 바자 수익금 1억원을 서산·태안 환경운동연합에 기부할 예정이다. <롯데백화점 광주점 제공>

연말 대사면 없다?

재계, 정부 움직임 없자 실망 기세

성탄절 직전에 발표된 하던 연말 사면에 경제인들이 대거 포함되기를 희망했던 재계는 실망하는 기색이 역력하다.
실무적인 준비에 필요한 일정 등을 감안할 때 지금쯤은 상당히 구체적인 움직임이 있어야 하지만 아직 아무런 조짐이 없어 올해 중은 물론 앞으로도 상당한 기간 사면은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경제단체의 한 관계자는 17일 "예년의 경우 성탄절 특사가 있으려면 벌써 오래전에 실무적인 준비가 진행됐겠지만 올해는 아무 움직임이 없다"면서 "정부 쪽에서 시그널이 없는데 재계가 먼저 조치를 취할 수도 없어 속만 태우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경제계가 다시 사면건의를 한다면 광복절을 앞두고 건의했던 사면대상과 그 이후 형이 확정된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나 당시 누락됐던 옛 그룹 경영자와 중소기업인을 포함해 모두 70여명이 대상자 명단에 포함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상공회의소와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무역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제5단체는 지난 8월3일 김우중 전(前) 대우그룹 회장, 박건배 전 해태그룹 회장, 최순영 전 신동아그룹 회장, 장치혁 전 조합그룹 회장 등 기업인 63명을 광복절 특사에 포함시켜 줄 것을 건의했다. /연합뉴스

성인남녀 인생의 최우선 순위

연인·배우자 > 부모 > 일·직장

20세 이상 성인들은 인생의 최우선 순위로 연인 또는 배우자를 꼽았다.
취업·경력관리 포털 스카우트는 공모전 전문미디어 생긱과 함께 대학생 및 직장인 560명을 대상으로 일과 가족 등 우선순위를 설문한 결과 '연인·배우자'가 35.0%로 가장 많았다고 17일 밝혔다.
이어 부모(28.6%), 일과 직장(17.9%), 자녀(12.1%) 등의 순이었다.
남성은 부모→연인·배우자→일·직장 순인 반면 여성은 연인·배우자→일·직장→부모 순으로 성별 간 인생의 우선순위가 달랐다.
이들은 대개 '사랑하면 대체로 결혼해야 한다'(36.4%)고 생각했으나 '사랑과 결혼은 별개'(25.0%)라는 의견도 적지 않았다.
사랑의 유효기간에 대해서는 1년(25.0%) 혹은 3년 이상(24.3%)이라는 답변이 주를 이뤘다. 또한 크리스마스 이브(29.3%)와 따뜻한 봄날(29.3%)에 열정적인 사랑을 가장 하고 싶다고 답했다. /연합뉴스

제조업체 10곳 중 4곳 '적자'

■韓銀 1,540개업체 올 3분기 경영 분석

42%는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못갚아

상장·등록 제조업체 10곳 중 4곳은 매출액 세전순이익률이 0%를 밑도는 '적자기업'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갚지 못하는 제조업체도 40%를 넘어섰다. 제조업체 10개 가운데 4개가 물건을 팔아 이자도 갚지 못하는 상태라는 뜻이다.
한국은행이 1천540개 상장·등록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해 17일 발표한 '3·4분기 기업경영 분석' 결과에 따르면 제조업체 가운데 세전순이익률이 0% 미만인 '적자업체' 비중은 전분기 34.1%에서 3분기 37.4%로 확대됐다.
이는 2003년 1분기 한국은행이 관

련 통계를 작성한 이후 최고 수준이다.
매출액 세전순이익률이 20% 이상인 '고수익업체' 비중도 3분기에 8.6%를 나타내 1분기 9.9%보다 1.3%포인트 낮아졌다.
특히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갚지 못하는 제조업체(이자보상비율 100% 미만)는 42.2%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전분기 38.4%보다 크게 확대된 것이다.
무차입 기업을 포함해 이자보상비율이 300% 이상인 업체 비중도 47.5%에서 44.2%로 3.3%로 줄었다.
한편 3분기 제조업의 영업이익률은 전분기 6.4%에서 3분기 7.1%로

함께 일합시다



업체명	모집분야	자격 및 경력	연봉(만원)	마감일	연락처
☎신영하이테크	자동차 press 부품 생산직 인원채용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12/20	062-949-8800
☎기보농산물	경영입문, 문서수발 외	고졸/경력무관	1400~1600	12/21	062-367-1161
☎엠엘아트	인테리어설계(1), 기구3d, 편집(1)	초대졸/경력무관	회사내규	12/22	062-226-8900
☎아름다운사람들미용학원	직원모집 (인바운드TM/메이크업/네일아트/교육상담)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12/22	062-233-6668
☎메트로라이프개발	경영, 회계 여성인재모집	대졸/경력무관	회사내규	12/24	062-234-2646
☎동양이노텍	생산공정 품질관리 및 영업지원	고졸/경력1년	2400~2600	12/24	062-946-1466
☎에이치아이코리아	정규직 일반영업인원/경력, 품질관리(경력)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12/25	062-513-8000
☎신안중공업	각 부문 경력사원 모집	대졸/경력3년	회사내규	12/27	062-717-5521
☎동양생명	☎본사 (서울/광주/부산)고객상담원(여모집(주5일,TV방송중))	고졸/경력무관	3000~3200	12/28	02-518-2769
☎디케이산업	총무지원 여성인재모집	고졸/경력무관	1400~1600	12/28	062-953-0885
☎전남대학교병원	전남대학교병원 조리원(시간제) 모집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12/28	062-220-5022
☎삼성 디지털프라자 금남로점	경영 / 판매직 사원모집	고졸/경력무관	1200~1400	12/31	062-232-9191
☎영해산업개발	엘지하이사시 영업 및 사물관리모집	고졸/경력무관	1200~1400	12/31	062-227-4848
☎시카프관광개발	특기급 호텔 인사담당자 채용	대졸/경력7년	회사내규	12/31	062-717-7000

<광주잡코리아 512-6210 제공>